

# 고은 불교대하소설

## 지옥순례 ②

**불** 이보살 일행 네 보살은 과연 그들조차도 오직 승각할 뿐인 이곳,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할지 모르는 이곳에서 중생들이 받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아무런 힘도 없는 자신들을 알게 되었다. 보살이란 중생을 위한 존재가 아닌가. 그럼에도 그들은 그 중생의 고통 앞에서 어떤 방편도 없는 건달에 지나지 않았다. 심지어 무전보살은 그가 오른 보살의 지우에서 떠나버리고 싶었고 보살이라는 호칭조차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흉터 벗어 던져 버리고 싶었다.

악의 종류가 불어지면서 이런 부지옥의 역할이 활발해지고 있었다. 불이보살이 말하였다. "부처님께서 우리를 이 지옥으로 보내신 것은 먼저 지옥의 실상을 알라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보살의 몸을 저 고통받는 지옥중생의 하나하나와 함께 함으로써 우리도 저 고통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보다 어디까지가 지옥인가를 알아야했습니다. ... 다음 지옥으로 내려 갑시다."

새 보살은 그런 변명에 가까운 말에 어떤 이의도 내지 않았다. 그들 역시 먼저 이 엄청난 지옥 세계의 일부라도 좀 더 알아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근부지옥과 부지옥을 통틀어 128개의 지옥이 있다는 사실은 합두보살이 아가 축승지옥의 한 부지옥 옥졸로부터 알게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지옥세계는 6도(六道) 중생계의 하나이기보다는 그 자체가 고통으로 이루어진 무량세계로서의 우주 가 아닌가. 합두보살이 불이보살의 뒤에서 한마디 던졌다. "보살의 몸이란 고통의 몸입니다. 아아 이 고통!"

실지로 합두보살은 그 여성적인 자상함이나 자비의 섬세함 때문인지 아직 그녀의 결단이 있기 이전인데도 지옥중생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삼기 시작한 것인지 모른다. 파우보살이 그런 합두보살을 조금이라도 낮게 하려고 당장 큰 키의 몸에 땀을 뻘뻘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하였다. "우리 돌아갑시다. 돌아가... 인간계에 가 있다가 다시 옵시다. 단단히 보살의 발원을 한 다음..."



132

그는 그 미인이 올라가 있는 나무에 서 숨치 않고 다가갔다.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그의 색욕은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가게 만들었다. 그러나 나무 밑에 하나하나 앉고 아주 날카로운 칼날로 되어있고 나무줄기에도 바늘같은 것을 내밀고 있었다. 그런 일새와 줄기의 사나움에 고통을 당하면서도 추장아들은 그의 마음에 속 들어버린 미인에게 나무위 칼날과 줄기의 바늘들에 피투성이가 되어 올라갔다. "어서 와요. 어서 와 나를 극락세계의 그 꿈같은 극락으로 데리고 가 줘요... 어서 와 나를..."

깨비였던 미인가. 그렇겠지. 지옥에도 허깨비가 있을 터이지. 문득 그는 아래쪽을 내려다 보았다. 바로 그가 올라왔던 나무 밑에 그 미인은 가 있지 않은가. "아니!" "어서 나를 안아주세요. 어서 내려와 나를 안아주세요." 그는 다시 나무 줄기와 일새가 주는 고통으로 온몸의 인파이 피투성이가 되어 내려갔다. 미인은 없었다. 그 미인은 어느새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다. 이렇게 추장아들의 불타는 욕정은 그 나무 오르내리기를 수없이 되풀이하며

그들은 그곳을 떠났다. 맨 뒤에서 걸고 있는 파우보살은 한 중생이 향문에 붙은 구릿물을 부여넣는 형편을 받고 있는 광경을 보았다. 그 구릿물은 직장 대장 소장 12지방 위장 그리고 식도를 거슬러 올라 임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그 중생의 몸은 물 속에서 쪼는 구릿물에 녹아버렸다. 그런데 이런 고통은 한번이 아니라 몇 1만번 동안이나 이어지는 것이었다. 그것은 전생에 남자끼리의 성에 때문에 받은 업보였다.

## 지옥중생의 고통을 자기것으로 체험하려는 네 보살의 얼굴엔 우수와 비애가 서렸다

중합지옥에 떨어지 아직도 그 색욕에 눈이 먼 상태로 햇바다를 드러내놓고 여기 저기 휘둘러 보고 있었다. 불이보살 일행은 걸음을 멈추고 그 추장 아들이 하는 짓거리를 관찰하기 시작 하였다. 아주 잘 꾸며진 나무 위에 아름다운 여자가 올라가 있었다. 바로 그 여자를 추장 아들이 노리고 있었다. "참으로 이제까지 내가 찾던 미인이 여기에 있군... 그렇게도 수많은 여자를 지나서... 이 지옥의 고통을 받은 나머지 이런 미인이 있구나." 그는 참을 수 없었다. 아무리 지옥의 고통이 그를 삼키더라도 그가 발견한 나무 위의 미인은 그에게는 마지막이나 만날 수 있는 기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추장아들은 벌써 몸의 살갓이 아니라 내장까지 찢리고 찢리는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 미인을 놓칠 수 없었다. 드디어 그는 그 미인이 있는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그 처절한 고통을 받으면서, "아아!" 그런데 그 나무 꼭대기에 있어야 할 미인이 바로 눈 깜짝할 사이에 자취가 없어졌다. "아니! 이럴수가!" 추장아들은 고통과 갑작스러운 허탈로 어쩔 줄 몰랐다. "이럴수가!" 그는 그의 눈을 의심하였다. 눈까지도 나뭇잎 칼날에 다쳐서 괴팍했었다. 허

고통 속에 파묻혔다. 그런 광경을 지켜본 네 보살은 한동안 입을 다물어야 하였다. 무전보살이 떨어진 나뭇잎새의 칼날에 손끝을 베어 피가 났다. "저 녀석만이 색욕에 눈이 먼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전생다생에는 저런 중생에 지나지 않았음에 틀림없는 줄 압니다." "....." "하하하 우리 뿐이 아니라 억겁 만겁 전에는 오늘의 부처님께서도 저런 중생이었다가 한 생 한 생 원을 세워 수행과 보살행을 다한 나머지 아니겠습니까?" "....." "억겁 항아사겁 나유타겁 무량대수겁 동안의 시간이 그저 시간이었겠습니까. 온갖 중생계 드러내며 온갖 고락을 다 받

추장아들의 불타는 욕정을 지켜본 네 보살 "우리도 전생다생에 틀림없이 저런중생..."

으며 그 업장 가운데서 헤어날 줄 모르다가 어느 날에 빈개가 쳐 문득 그 자신의 본래 면목을 짐작한 나머지 부러부러 큰 꿈을 꾸어 좀더 나은 중생으로 나아갈 수 있었겠지요... 그런 중생으로 정진하다가 아래에서도 들고 보살경계에도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 "생각컨대 우리를 하나하나 본래 면목으로 저 추장아들너서와 하나도 다를 바 없이 고르거늘."

그들은 그곳을 떠났다. 맨 뒤에서 걸고 있는 파우보살은 한 중생이 향문에 붙은 구릿물을 부여넣는 형편을 받고 있는 광경을 보았다. 그 구릿물은 직장 대장 소장 12지방 위장 그리고 식도를 거슬러 올라 임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그 중생의 몸은 물 속에서 쪼는 구릿물에 녹아버렸다. 그런데 이런 고통은 한번이 아니라 몇 1만번 동안이나 이어지는 것이었다. 그것은 전생에 남자끼리의 성에 때문에 받은 업보였다.

파우보살은 새 보살에게 그 광경을 말하지 않고 어서 이런 지옥의 순례를 끝내고 싶어졌다. 보살의 몸일지라도 지옥에서는 지옥의 몸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아직 이런 지옥에 와서 지옥중생과 함께 있거나 그들을 견지려는 발원을 한 상태가 아니었다. 굳이 말하자면 그들은 이곳을 그들의 마음 속에 아로 새기기 위해서 찾아온 하나의 순례였던 셈이다.

그들은 훨씬 더 우수에 물들여진 표정이었다. 보살의 얼굴일지라도 한희와 감사의 표정 대신 우수와 비애가 서린 표정으로 바뀌어져야 하였다. 1만유승의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렇듯 생각도 없이 거기까지 내려간 것이다. 그것이 보살의 시간과 공간이기도 하였다. 규환(具喚)지옥이었다. 거기에도 지옥의 형리(刑吏)인 소대거리와 말대거리가 있었다. 그들이 한 중생의 입을 쇠로 만든 집게발로 열어 거기에 술 대신 끓는 구릿물을 부여넣고 있었다. 그 구릿물이 밑으로 나오기까지 소리로 지를 수 없고 몸부림 칠수도 없게 형리가 짓누르고 있었다. "아아 지옥이란 이리허도데!"

그림·조향숙

### 우란분절법회 · 칠석법회 설법자료 및 범보시 책자 보급 안내

#### 우란분절과 효이야기



우란분절 법어 및 발원문, 백중기도와 부모님을 위한 발원, '효'에 대한 부처님의 한결같은 가르침, 영원한 사랑이야기...칠석 등을 신도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서 미리 보냄으로써 범보동참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으며 칠월칠석과 우란분절에 절에 오시는 신도님께 좋은 범보시가 될 것입니다.

- 수 록 내 용**
- 제1부 우란분절 기념 법회  
우란분절 법어/우란분절 발원문
  - 제2부 백중기도와 부모님을 위한 발원  
목련의 효행과 우란분절의 시작/우란분절과 백중/거룩한 효심, 뜨거운 실천
  - 제3부 '효', 부처님의 한결같은 가르침  
경전에서 보는 효의 말
  - 제4부 영원한 사랑이야기...칠석  
그리움으로 사는 삶 · 전우와 적녀/자손위한 사랑으로 회향하는 기도...칠성불공 칠성부적으로 이어지는 끝없는 기도/칠월성군 천연과 부작

**우란분재와 칠석이야기** 정가/1,500원

**우리말 부모은중경 · 우란분경 · 목련경** 정가/1,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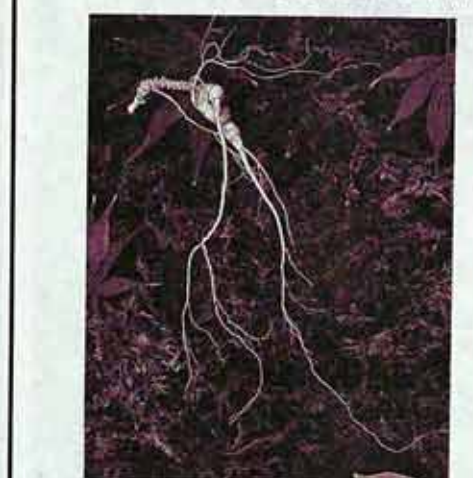
- ◆ 200원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을 넣어 드리고, 범회안내, 범보시자 명단을 추가로 인쇄하여 드립니다.
- ◆ 범보시 가격/각 권당 1,500원
- ◆ 크기/신국판, 80페이지

**감로출판사** 서울특별시 중구구 수송동 13번지 ☎(02)723-4306~7, 팩스(02)738-8682

###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사립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신심의 표봉**

- 산삼은 기지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이권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질, 간경화, 악성전립,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약자에게 활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결핵,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쇠기증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부중,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치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 않고 버리게 하여지며 체력이 높은 강건한 체질로 개선했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약 효험이 있다.

**복합효능은 스님**  
오늘도 叢生 求道와 佛功으로 불행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서동계 轉運하시기를 祈禱드리고 山蔘의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리 칠월칠석 불꽃 기지회 스님께 報恩의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려고 하오니 부담없이 위해 선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용식물은 본부에는 上蔘 120가지 中蔘120가지 下蔘125 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 장뇌산삼의 식물 재취한 후 높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전 화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당(자연산삼 150년근 보유, 3회)
- 자연산삼 문의상당(삼대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연구협회의 서울 「장뇌산삼」 사업부